

AFP “유엔 대북 제재 강화로 이어질 것”

北 수소탄 핵실험 외신 반응

NHK “국제사회 비난 못 피해”

中 “전략적 결정” 북한 발표 인용

북한이 6일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전격 발표하자 외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 사실을 알리자 3분 후인 12시33분 AFP통신이 외신 가운데 가장 먼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한줄 뉴스로 보도했다.

이어 교도통신과 AP, 신화, dpa, 로이터통신 등이 차례로 북한의 수소탄 실험 소식을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시험이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라거나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등의 북한 공식 발표도 잇따라 속보로 타전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라는 것과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상황 등도 소개했다.

AP통신은 이번 수소탄 실험이 “유엔에 새로운 대북 제재 요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전망했으며, AFP통신도 이번 실험이 “대북 제재 강화로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발생해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을 때에도 외신은 일제히 이



수소탄 모형 북한은 6일 오전 10시 수소탄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모습을 드러낸 수소폭탄 AN602의 실물크기 모형. /연합뉴스

를 긴급 보도했다.

오전 10시30분(한국시각) 북한에 인공지진이 발생하고 연합뉴스가 10시45분 유럽지중해지진센터가 인용해 지진 발생 사실을 보도한 이후 주요 외신 가운데는 처음으로 10시50분 신화통신이 중국지진센터가 인용해 지진 사실을 한줄짜리 긴급 기사로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10시59분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지진 발표도 함께 보도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AP통신이 “북한에서 작은 지진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으며, AFP통신과 로이터, 블룸버그 등도 차례로 긴급 기사로 지진 소식을 전했다.

외신들은 폭발로 인한 인공지진으로의 심된다. 중국지진센터의 반응과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본 정부의 반응도 신속히 보도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과 영국 BBC방송, 일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더타임스 등 해외 언론들도 북한의 수소탄 실험 소식과 인공지진 소식을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보도하며 한반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 NHK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8일을 앞두고 새로운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지만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만중앙통신은 이날 마잉주(馬英九) 다만 총통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을 고도 중시하고 있다며 즉각 마오즈궈(毛治國) 행정원장(총리격)과 가오화주(高華柱) 국가안보회의 비서장을 불러 관련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홍콩 봉황망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지난 7월 28일 이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발언에서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지 대사는 당시 “북한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지속적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가주권과 생존을 위해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망도 북한의 핵실험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전략적인 결정이었다는 북한 발표를 인용했다. /연합뉴스

北 핵실험 여파... 외교 시험대 선 오바마

공화당 대선주자 “외교 실패”

미국 대선의 공화당 경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6일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미지광이(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 핵무기를 증강하려 한다는 사실을 선거 기간 내내 강

조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의원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적’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들고 있다며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날 낮 12시30분 수소탄 핵실험 사실을 공식 발표했지만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현재로서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4차례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가운데 3번(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이뤄졌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연합뉴스

中 화웨이 “2년 내 아이폰 제치겠다”

중국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년 안에 2위로 올라서겠다고 선언했다.

5일(현지시각) 인터넷서널비즈니스타임스에 따르면 화웨이의 소비자사업 부문 대표인 리처드 유는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2018년 말까지 애플을 따라잡고 삼성전자에 이은 2위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1억대 넘는 스마트폰을 팔아 삼성, 애플에 이은 3위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작년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8000만대로

전년의 7800만대보다 44% 증가했다. 리처드 유는 지난해 스마트폰 등 소비자 부문 매출이 약 70% 늘어 200억달러가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리서치회사 GfK의 데이터를 인용해 화웨이가 지난해 9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9.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28.3%, 애플은 11.8%다.

화웨이는 미국 시장에서 신제품인 ‘화웨이 메이트 8’을 내놓고 삼성 등 다른 안드로이드 경쟁업체를 위협할 태세다. 메이트 8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가격은 4G 64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이 699달러(87만 원)다. /연합뉴스

사우디-이란 갈등에 日 자위권 발동하나

수입 원유 통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땀 검토

집단 자위권 법(안보법) 통과로 해외 무력행사의 길을 연 일본이 단교 사태로까지 치달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자국 헌정 사상 처음 발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중동 안정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 등을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가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특히 3월 발효되는 안보법을 발동하는 상황까지 시야에 넣은 채 위기관리 태세에 돌입했다고 산케이는 부연했다.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우디와 이란에 둘러싸인 호르무즈해

협의 봉쇄 가능성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보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중 8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작전을 누차 거론했다.

그에 따라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헌법 해석 변경, 작년 9월 안보법 국회 통과 등을 통해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전투 중’에 기뢰 제거를 위한 자위대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입각해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기뢰 제거는 전투행위 중단 후의 버려진 기뢰에 한정해은 과거 정권의 기조를 일거에 변경한 것이다.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집단 자위권 발동을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기뢰 제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호주 콰타스, 3년 연속 가장 안전한 항공사

한국 항공사들 20위권 밖

호주 콰타스 항공이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뽑혔다.

항공사 안전 사이트 에어라인레이팅스닷컴(AirlineRatings.com)에 따르면 콰타스 항공이 지난해 안전한 항공사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고 CNN 등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콰타스 항공은 에어라인레이팅스닷컴이 평가를 시작한 2013년부터 순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안전한 항공사 ‘톱 20’에는 콰타스 항공을 포함해 아메리칸항공, 알래스카항공, 일본 아나항공, 에어 뉴질랜드, 캐세이퍼시픽, 에미리트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에바항공, 핀

에어가 포함됐다.

하와이안항공과 일본항공(JAL), KLM, 루프트한자, 스칸디나비아항공, 싱가포르항공, 스위스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버진 아틀란틱,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항공사들은 안전도 면에서 20대 항공사에 들지 못했다.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에어링구스와 플라이비, HK 익스프레스, 제트블루 등이 안전했다. 네팔과 인도네시아, 수리남의 항공사들이 낮은 안전도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대형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가 16건(560명 사망)으로 10년 평균 31건(714명 사망)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고는 2014년 21건(986명 사망)보다도 많지 않았다. /연합뉴스

미국서 암약 중국 비밀 공작원, 감시망 뚫고 귀국

미국에서 암약하던 중국 비밀 공작원이 최근 미국 사법 당국의 감시를 피해 비정상적인 루트로 중국에 귀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博迅)은 5일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에서 비밀 공작 활동이 발각돼 전자 수갑을 차고 감시를 받던 정보요원 쩡다원(曾大軍)이 최근 멕시코를 경유해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후베이(湖北省)성 당위원회 상무위원과 선전부장을 지낸 쩡다원(曾大軍)의 큰 아들인 쩡다원은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후베이성 지부 출신으로 지난 1990년 미국에 잠복해 미국내 중국 민주화 운동 파괴 공작을 주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과 진행중인 해외 도피범 송환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연합뉴스

“급매”

싸고 좋은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 ▶주인 직매함
- H.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6층, 70평, 즉시 임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시세-1억5천만원, 매매-1억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 5백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1천만원, 매매-500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1천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